



여수신항 일대 박람회장 전경. 박람회 주제를 함축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영구 시설인 주제관과 바다전시장 한가운데 설치되는 '빅오(Big-O)' 등 주요 시설물의 공사가 한창이다.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박람회장 조성공사 공정률은 지난달 말 기준 71%에 이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4대 현안, 강시장 구상은?

-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전철 방식 유력 검토
- 제2컨벤션센터 DJ센터 여유 부지에 건립
- 백운고가도로 도시철도 2호선 착공전 철거
- U대회 선수촌 지역업체 참여 적극적 모색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으로 저심도전철(약전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새로 지어질 제2컨벤션센터는 기존의 감대중컨벤션센터 여유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운대 광주시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방재정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저심도전철(약전철)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각종 절차 등을 감안하면 착공시기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애초에 제2컨벤션센터 부지 검토했던 5·18 자유공원 일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는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심도전철 방식은 전동차가 지하 4~9m 사이에서 운행되는 방식으로, 지하 9m 이상의 깊이에서 전동차가 운행되는 중전철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강 시장은 지난 7월 시민 대토론회를 비롯해 취임 이후 줄곧 "지상고가 방식의 경전철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대안으로 노면전철과 약전철, 모노레일 등 3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제2컨벤션센터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시 재정과 기존 컨벤션센터와의 연계성을 감안해 감대중센터의 여유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감대중센터를 설계했던 업체로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실무검토를 거쳐 사

였다. 백운고가도로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전에 철거할 계획이지만, 지하도를 새로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고가도로 철거 이후 우려되는 일부 차량정체를 없애기 위해 동야병원 앞(풍암지구 입구)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폭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공업체인 현대건설 측에 하도급 물량을 지역업체에 적극 배정해주도록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여수박람회 D-200 문제는 교통이다

예산 확보 안돼 셔틀버스 운행 차질 하루 승용차 3만대 '주차 대란' 우려

내년 5월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박람회장을 찾을 관람객들은 1047만 9000명에 이르는 반면, 교통 여건과 수송 대책은 턱없이 미흡해 사상 최악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대로라면 자칫 박람회 기간 주변 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우려돼 관람객 및 지역민 불편은 물론 지역 이미지 및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시와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수단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박람회장 진입을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인근 환승주차장에서 박람회장간 셔틀버스를 운영해 혼잡

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조직위원회의 교통 대책은 여수로 진입하는 차량을 여수시 외곽 6곳(157만 6000㎡)의 환승주차장(승용차 3만3087대·버스 864대)으로 유도해 관람객들을 박람회까지 셔틀버스로 실어나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여수시는 시내로 진입한 차량을 55곳의 임시주차장에 묶어두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평상시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다, 박람회 기간 증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면 '교통 지옥'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승용차를 이용한 박람회 관람객만 647만7000명에 이르면 주말 여수를 찾는 승용차가 하루 최대 6만2755

대(순천·호남 방면 4만5045대, 광양·영남 방면 1만7709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주차 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조직위는 여수시가 마련한 임시 주차장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구상이지만 하루 박람회 관람객의 53.3%가 박람회장을 들렀다가 여수시 관광에 나설 것이라는 시의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에는 최대 3만3448대의 승용차가 시내 관광을 위해 여수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돼 55곳의 임시주차장(2만2000면)으로는 역부족이다.

셔틀버스 운행 대책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조직위원회는 관람객을 환승 주차장에서 박람회장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주말 최대 901대의 셔틀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엑스포터운 내 셔틀버스 승·하차장의 수용 가능 대수(885대)를 넘어 서게 돼 효율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

이다. 여수시도 시내 임시주차장~박람회장간 셔틀버스 80대를 운행하더라도 주말에는 최대 3만9000명의 관람객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송 용량(7만7000명)을 메울 수 없는 처지다.

앞선데 덮친 격으로 박람회조직위가 요청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412억원의 국비 중 264억만 반영된 데다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탓에 여수시내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셔틀버스 노선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교통체증 때문에 자칫 박람회장만 둘러본 뒤 바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람객이 많아지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안철수, 박원순 지지 공개 표명

서울시장 보선 내일 투표...아래 "승세 굳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범야권 박원순 후보 지지를 공개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선 거구도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안 원장의 일선으로 그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안 원장은 이날 오후 안국동 선거 캠프를 전격 방문, 박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멀리서나마 계속 응원하고 있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사람의 투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투표율이 60%를 넘었으면

좋겠는데 투표일 아침 기온이 1도도 푹 떨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고 송호창 대변인이 전했다.

안 원장은 박 후보에게 응원 메시지를 담은 편지도 전달했다. 그는 편지에서 1955년 미국 흑인 인권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로자 파크스 사건을 언급한 뒤 "로자 파크스처럼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바꿔놓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선거 참여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안 원장의 선거지원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지만 야권에선 박원순 우세 상태에서 승기를 확실하게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됐다. 민주당의 당원과 전통적 지지층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박 후보의 승리를 우리가 만들어 낸다는 자세로 총력 지원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Since 2002

화/정/동
[광주 새우리병원]

광주 농성역 사거리
대표전화: 062)603-8000

www.saewoori.com

“경축”

광주 새우리병원
(구)광주우리들병원

보건복지부지정 **「척추전문병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발표 척추질환진료실적
“영·호남 1위, 전국 4위”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우리병원은 척추질환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새우리병원은 **광주 화정동** **순천 조례동** **2곳** 뿐입니다.

Since 2011

조/례/동
[순천 새우리병원]

순천 조례 삼거리
대표전화: 061)906-8000